

#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조 현 진      박 성 수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서울대 교육학과

본 연구는 가정교육에 어떤 결함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청소년의 비행이 형성되는가를 밝혀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탐구의 주안점은 비행 청소년과 그 가족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내용 등이었다. 청소년 비행을 가정교육의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가정교육의 개념모형을 발전시키고 이를 근거로 면접을 위한 준거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비행 청소년들에게 질문할 내용들을 상세하게 선정하였다. 면접은 규격화된 개념모형이 빠뜨릴 수 있는 중요한 변인들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개방질문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자료의 분석은 34사례의 표준화 면접기록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 가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생활교육이 부재하거나 약화될 때 청소년은 비행에 대한 저항력을 잃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원인론적 고찰은 크게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거시적 접근법은 청소년 비행을 사회계층적인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며(Burt, 1965;Cohen, 1958; Gibbons, 1970), 미시적 접근은 청소년 비행을 개인의 신체, 심리, 행동적인 특성으로 분석하거나 가족 혹은 또래집단 등의 소집단 역동 등을 분석하는 전략을 취한다(Button, 1973; Rutter, 1971; Stanfield, 1966). 청소년 비행을 연구하는 이들 두 관점은 상호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탐구의 초점이 “가정교육”에 있으므로 후자의 관점 즉, 청소년 비행에 관한 미시적 관점을 주로 취하게 될 것이다. 미시적 연구가 갖는 하나의 중요한 장점은 그것이 개인의 사고와 행동,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소집단 간의 상호작용 등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식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시적 연구는 비행예방 및 교육정책 수립 등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시사를 제공하기에 매우 적합할 것이다.

임상적인 관찰에 의하면 청소년이 범죄자가 되는 경로와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구체적으로는 각 개인마다 모두 독특한 과정을 통해서 범죄에 빠져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인의 고유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는 다소의 일반화가 가능한 현상이 있으리라고 보인다. 청소년 비행 또는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본 연구는 특히, 가정교육에 어떤 결함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청소년이 범죄자가 되는가를 밝혀내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이런 탐색과 발견을 토대로 올바른 가정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의 비행화 및 범죄를 예방,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 것까지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전통사회의 해체로 핵가족화가 진전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여성의 사회 진출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며 무책임한 결혼과 이혼으로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대화가 없는 가정이 증가하는 가정에서 부모가 담당하여야 할 생활교육 기능의 결함을 가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 생활교육에 관한 체계적 지식과 기능의 부재는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자녀양육과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 및 범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구조적 모순이나 문제의 분석(예; 계급이론, 소득재분배의 모순 등), 가정의 형태적 문제(예; 결손가정, 거주지역, 부모의 학력 등) 혹은 사회심리적 현상(예; 소외, 아노미 등) 등의 탐구에 집중되어 온 듯한 인상이 짙다. 이와 같은 접근들은 비행이나 범죄의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실천적인 차원에서 범죄와 비행의 문제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교육적인 방안을 탐색하는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회구조적 모순, 가족(식구)의 결손상태, 소외현상 등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우리사회에서는 범죄에 대한 실천적인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시사할

수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차원(예; 각 부모), 가정의 차원, 지역사회 차원, 기관의 차원(예; 학교, 언론기관, 단체), 그리고 정부의 차원 등에서 직접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사가 있도록 연구의 전략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가정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부모의 반응, 이러한 반응(혹은 무반응)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과 감정 등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들을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면 범죄자로 “발전된” 청소년에게 그 부모가 어떻게 행동했고 자녀의 비행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분석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그러한 가정교육의 과정 중에 어떠한 비교육적인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가를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비행 청소년의 지도 방안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격과 행동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방향을 설정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여기에서는 우선 청소년비행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을 살펴보고 나서 가정교육이 청소년비행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고찰하려고 한다.

### 1.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여러 접근

청소년 비행을 Weiner(1982) 사회적 측면의 비행, 이상심리적 측면의 비행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로, 사회적 측면의 비행이란 반사회적 행동을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하위문화의 구성원들이 행하는 범법행동을 가리킨다. 갱문화나 범죄문화의 청소년들이 범하는 위법행위가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둘째로, 이상심리적 측면의 비행은 성격장애나 신경증으로 인해 유발되는 것을 가리킨다. 성격장애적 비행은 오래 동안 지니고 있는 성격의 병리로 인하여 행하게 되는 비행을 가리킨다. 신경증적 비행은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그 욕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범칙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Achenbach (1982)도 위와 비슷한 관점에서 청소년 비행을 종합적으로 이론화하였다.

비행이 어떤 학습의 과정을 거쳐서 습득되느냐 하는 것은 생리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등 다양한 이론적 체계에 의하여 설명되어 왔다. 정신분석학적 접근이나 생리학적 접근의 특징은 비행 청소년 개인의 유전, 생리학적 특성, 개인의 내적 좌절 등에서 비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심리학적 접근의 특징은 대체로 개인의 욕구, 태도, 의견, 가치관이나 내면적인 정신역동에 중점을 두어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한다. 사회학적 접근에서는 대체로 사회구조나 사회화의 과정으로 비행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비행이란 환경과 개인의 역동적 관계의 함수라는 기본공리에서 파악해 나갈 수 있다(이성진 & 박성수, 1984).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각각 독특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일정한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방법이 정상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방식으로 학습되면 비행이나 문제행동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또는 사회적 맥락을 통해 학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라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개인이 독특한 삶의 역사를 통하여 학습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사회학습 이론의 입장에서 가정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될 때에 청소년이 비행이라는 범칙행동을 학습하게 되느냐 하는 과정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 2.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

사회학습이론에서 보면 인간행동은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하게 된다. 가정은 인간이 사회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기관이며 가장 강력한 사회학습의 기관이다. 가족간의 상호작용은 행동의 형성, 증강, 약화, 소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성원이 보이는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행동은 가족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항상 영향을 주고 있다(Hetherington, Stouwie & Ridberg, 1971; Rotter, 1954). 인간은 좋은 행동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도 학습한다. 인간행동의 학습과정을 분석하면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적응행동 내지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많은 강화가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사회적인 행동 역시 부적응한 사회학습과정의 부산물이다(Santrock, 1983). 한 인간이 사회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기술이 필요하다. 아동은 출생에서부터 계속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적절한 대인관계 기술, 일과 활동에 관한 작업적 기술, 공부에 관련된 기술을 학습하고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 만약 이러한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여 부적응을 보인다면 그만큼 정상적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반사회적 행동에 접근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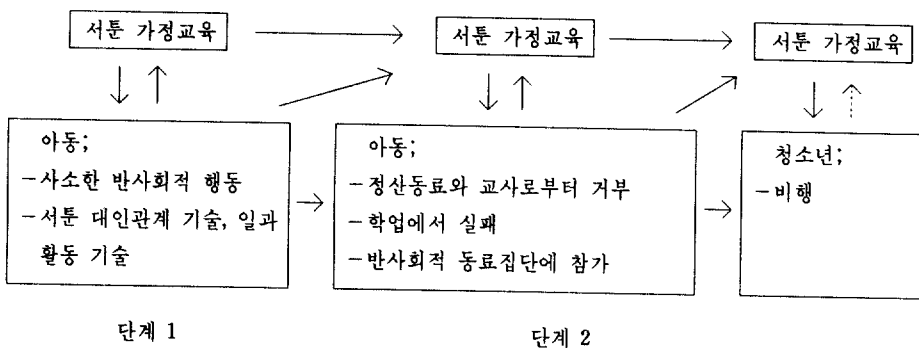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정에서의 사회학습과정은 실패하여 비행에 접근하게 되는 과정을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나 Snyder와 Patterson(1987)은 아래와 같은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1단계는 아동기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사회학습 과정으로 인하여 아동기에 거짓말이나 싸움, 불순종 같은 사소한 반사회적 행동을 습득하는 단계이다. 아동은 사람을 대하는 대인관계의 기술과 공부나 과업을 처리하는 작업적 기술이 세련되지 못하고 서툰다(Dishon, Loeber, Stouthamer-Loeber & Patterson, 1984; Freedman, Rosenthal, Donahue & Schlundt & McFall, 1978). 아동이 반사회적이고 부적절한 기술을 습득하면 반사회적 행동을 학습하는 두번째 단계로 넘어 간다.

제2단계는 아동이 동료들이나 성인들에 의해 거부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학업과 작업적 기술의 곤란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습득한 아동의 강압적이고 서툰 대인관계 양식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타인들로부터 배척받는 경험을 하는 아동은 이 방면에서의 기술들을 세련되게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Snyder, 1977).

‘정상적’인 동료에게서 배척받은 아동은 자신과 행동양식이 같은 동료와 어울리게 되고 생활에 필요한 기술이 역시 세련되지 못하고 강압적인 동료들 틈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게 되고 수행하며 연마해 나간다. 비슷한 특성을 가진 동료들과 서로 끌리고 어울리게 되는 ‘homophily’의 경향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비규범적인 동료를 친구로 선택하는 과정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는 요인이다(Kandel, 1978). 아동이 가정 환경 내에서 서툰 역기능적인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고 일탈행동을 보이는 동료를 사귀에 따라 반사회적인 행동은 점차 증가하고 다양해지며 심각해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반사회적 행동의 많은 부분이 가정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이 단계에서도 가족은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지도와 훈육을 통해 아동이 어울리는 동료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동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두 단계에서 부모—아동과 동료—아동의 영향은 상호적이다. 반사회적이거나 비행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그의 환경의 부산물일 수 있으며 동시에 환경의 설계자일 수도 있다. Patterson은 이러한 비행의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단계>

부모들의 서툰 가정교육이 오래 동안 축척되면 결국 청소년 비행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의 서툰 가정교육을 교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사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올바른 가정교육은 적응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여러 기술의 습득을 촉진하고 이러한 기술을 기능적으로 실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들 연구결과들이 밝히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오래전부터 널리 논의되어 오던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된다고 하겠다.

### 3. 가정교육의 차원

가정교육은 부모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기 위하여 의도적이거나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적 노력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행동의 측정 내지 평가, 즉, 생활과 행동의 질적, 양적 측정과 평가에 기초해서 모든 교육적 노력이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교육적 노력이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소멸 내지 약화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 내지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면 가정교육을 생활과 행동의 파악, 훈육, 바람직한 행동의 육성, 문제관리능력의 육성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1) 생활 및 행동파악

생활의 파악(*monitoring*)이란 부모가 자녀의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가, 어떻게 사귀고 있는가,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집밖에 있을 때 어디에 있는가, 학교 생활은 어떠한가 하는 걸로 드러나는 생활

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걸로 드러나지 않는 자녀의 내적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Patterson & Gullion, 1971). 자녀가 청소년시기를 전후로해서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은 부모가 유아기나 아동기의 자녀 생활과 행동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육적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 2) 훈육

훈육(*discipline*)이란 옳지 못한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옳지 못한 행동이 이루어진 뒤에는 교육적으로 지도하여 올바른 생활습관 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여러 측면의 가치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훈육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자녀의 연령과 성격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여러가지 훈육의 유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Snyder & Patterson, 1987; Stanfield, 1966).

첫째, 특정한 행동에 대해 옳지 못하다거나 반사회적이라고 정확히 정의하고 이름 붙여서 지적해 주어야 한다.

둘째, 시간과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옳지 못하다고 지적한 행동을 찾아내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방법을 일관성있고 조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아동의 가족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훈육방식은 다음과 같이 극단적인 경향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Snyder & Patterson, 1987).

첫째, 비행아동이나 청소년의 부모는 지나치게 허용적인 경우가 많다. 지나치게 처벌적인 훈육방식은 학습의 메카니즘을 전복시켜 혼란을 느끼게 하며

의도와는 반대되는 반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는 부모는 문제행동이라고 규정짓는 행동이 지나치게 많다. 아주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가진 부모는 언제나 처벌적이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된 특정 행동에 대해 효과적인 처벌도 할 수 없게 된다. 훈육은 처벌하지 않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방식일 때 더욱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항상 처벌할 행동을 찾기 위해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이러한 부모는 때로는 무심코 자녀의 일탈 행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훈육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기도 한다(Coleman, 1971; Patterson & Gullion, 1971).

둘째, 비행아동의 부모는 지나치게 허용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훈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의도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모, 특히 아버지는 자녀에게 벌을 주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만약 벌을 주더라도 별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극단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허용적인 훈육방식은 모두 일관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공통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적절한 훈육을 받지 않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행동했거나 지나치게 억압적인 방식으로 훈육받은 자녀는 지나치게 쾌락추구적이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억압적이어서 그 어느 쪽도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훈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부모는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잘못된 행동을 규정해 주고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발견하여 지적하고 반응해 주어 훈육을 통해 자녀가 생활에 필요한 여러 측면의 행동습관과 가치를 습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Hanson, Henggeler, Haeefe & Rodick, 1984). 훈육의 방식은 부드러워야 하며 동시에 확고해야 한다. 훈육은 번덕스럽거나 일관성이 없어서도 안되

며 느슨하거나 태만하지도 않아야 하며 동시에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엄해서도 안된다. 청소년 비행은 신체적 처벌이 심할수록 증가하며 훈육의 공정성이 결여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Button, 1973). 그러므로 신체적 처벌과 위협으로 훈육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 3) 바람직한 행동의 육성

훈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약화 내지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적극적 부모노릇하길란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고 증강시켜 나가도록 교육적 지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바람직한 행동의 육성 또는 적극적 부모노릇하기(positive parenting)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도덕적으로 옳바르며 정서적으로 성숙한 행동특징을 학습하도록 자녀들을 의도적 또는 무의도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녀가 바람직한 행동을 길러 나가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어떤 교육을 하여야 하는가에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결과는 대체로 일치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결과들을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는 올바른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Dishon, Loeber, Stouthamer-Loeber & Patterson, 1984).

둘째,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기준은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무비관적인 관심과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환경에서 더욱 자연스럽게 발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육성하고자 할 때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직접 경험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Davison & Neale, 1986). 이런 연구들은 인간중심 이론에서 무조건적 존중이나 공감적 이해가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행동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겠다.

세째, 바람직한 행동특성은 가족 간의 대화양식이 지지적일 때 더욱 촉진되며 부모와 여가활동을 같이 하고 즐기는 가운데 더욱 발달된다(Alexander, 1973).

결론적으로 볼때, 가정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한 자녀는 뒤이어 접하게 되는 동료집단에서 정상적인 동료들에 의해 수용되는 경험을 하고 학교에서도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가정에서 일차적으로 이런 기술을 학습하지 못했거나 잘못 학습하였다면 그 아동은 규범적인 사회행동이 학습된 사람들에 의해 거부당하게 되고 후속적으로 정상적인 사회학습의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이탈된 동료와 접촉할 기회는 쉽게 제공되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과 가치를 습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반사회적 행동 내지 비행행동은 계속적으로 조장된다.

#### 4) 문제관리능력의 육성

바람직한 행동특성에서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차원이 좌절, 스트레스, 위기 같은 것을 적절하게 다루어 나가서 문제상황을 잘 넘길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복잡한 삶의 문제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문제에 대처하는 관리능력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 성원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양식을 보고 이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문제 관리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성원들이 문제해결의 기술과 대처전략을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녀들이 문

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학습하고 연마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야 한다(Freedman, Rosenthal, Donahue, Schlundt & McFall, 1978; Rutter, 1971; Santrock, 1983). 문제해결의 과정이란 문제를 정확히 지각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이에 따른 몇 가지 대안을 찾고 이 대안들이 각각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과를 추론해 본 다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해결책을 선택해 가는 일련의 정보처리과정을 밟는 것이다. 가족성원의 문제대응력이 성숙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않다면 가족내의 갈등이 적정한 시간에 해결되지 않고 미해결의 상태로 오래 지속되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녀의 비행행동을 촉진하게 된다.

첫째, 미해결된 문제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는 이미 학습한 숙련된 행동도 와해시키게 된다. 부모가 스트레스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흥분되어 있으면 부모노릇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가족성원이 문제해결의 기술이 서투르면 가족내에 스트레스와 흥분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갈등과 논쟁, 싸움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가정에서 공격적 행동을 빈번하게 관찰하게 된 사람 자신은 공격적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셋째, 가정은 아동이 문제해결의 기술을 관찰하고 연습하는 최초의 장이다. 가정에서 이런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델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주면 아동은 대인관계, 학교생활, 일에서의 문제해결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활용된 연구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면접을 위한 기본 지침의 개발

청소년 비행을 가정교육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이론적 접근 등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가정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가졌으며 이 연구 회의에서 면접을 위한 개념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비행 청소년들에게 질문할 내용들을 상세하게 선정하였다.

그러나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한 가정교육에 관한 개념모형에 근거하면서도 구체화된 개념모형이 빠뜨릴 수 있는 중요한 변인들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개방질문의 형태로 질문하도록 하고 다음과 같이 면접을 위한 기본개념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개념모형은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된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인적 사항과 관련된 기초정보를 포함하였다.

## 2. 면접의 실시

### 1) 면접자

면접자는 모두 7명이며, 면접자는 면접전에 모든 면접자가 면접을 위한 기본 지침의 개발에 참여하였음에도 좀더 상세한 합치에 도달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의 리허설도 하였다.

### 2) 표집

면접대상은 서울 근교에 소재하고 있는 소년원의 입소자 중에서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36명이었고 이들은 15세에서 21세 사이의 남자 청소년들이었다.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양부모가 생존하

고 있는 청소년을 선정하려고 했으나, 몇명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 이중 면접 당시의 여건으로 인해 면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 사례와 면접대상자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또 다른 한 사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최종분석대상자는 34명이었다.

### 3) 면접방법, 절차, 기간

면접도구를 참고로 하나,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때 더 물어 보았으며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피면접자의 심리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기간은 9일간이었으며 면접시간은 소년원생들의 자유시간을 이용한다.

하루에 6명의 면담자가 2명씩 한조를 이루어 면담자와 기록자의 역할을 번갈아 수행하였다. 3팀이 각각 평일에는 1명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2명을 면담하였다.

1명을 면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걸렸다.

한 조에서 한명은 직접 면담을 하고 다른 한명은 면담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 3. 자료분석

기록한 내용은 면담이후에 한조를 이루었던 면담자와 기록자가 함께 모여 다시 확인하였으며, 이때 면담내용 중 기록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였다.

기록방식, 지침, 항목, 규칙등을 고려하여 표준화 기록을 예비적으로 실시하였다.

표준화기록 방식을 수정, 결정하였다.

34사례의 표준화 면접기록을 대상으로 내용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가정교육의 제차원이 청소년비행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관하여 면접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기술하여 정리한 내용을 다시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 결과분석

[표 IV-1] 사례별로 본 가정교육 제차원의 평가결과

문제영역 사례	행동과 생활과악		훈육		바람직한 행동육성			문제관리 능력육성		가정의 일반적 특징
	지침제시	행동과 생활과악	나쁜행동 금지	처벌	올바른 행동교육	애정	대화	소극적 육성	적극적 육성	
1	N	N	L	N	N	L	N	N	N	父주벽, 부모불화
2	N	N	L	N	N	L	N	N	N	부모불화
3	N	N	N	L	N	N	L	N	N	부모불화
4	N	N	N	L	N	L	L	N	N	비교적 원만
5	N	N	N	L	N	N	N	N	N	부모불화
6	N	N	N	L	N	L	L	N	N	父외도, 이혼
7	N	N	N	L	N	N	N	N	N	父외도, 부모불화
8	N	N	N	N	L	L	L	L	N	비교적 원만
9	N	N	N	L	N	N	N	N	N	이혼
10	N	N	N	L	N	N	N	N	N	부모불화
11	N	N	N	L	N	N	L	N	N	편애, 부모불화
12	N	N	M	L	N	N	L	N	N	뒀가출, 父사망
13	N	N	N	L	N	L	N	L	N	비교적 원만
14	N	N	N	L	N	N	N	N	N	부모불화
15	L	N	M	L	N	N	N	L	N	원만, 맞벌이
16	L	N	L	N	L	N	N	N	N	부모불화
17	N	N	N	N	N	L	L	L	N	비교적 원만
18	L	N	L	N	N	L	N	N	N	父사망
19	N	N	L	L	N	L	L	N	N	부모불화
20	N	N	N	N	N	N	N	N	N	父주벽, 母가출
21	N	N	L	N	N	L	N	N	N	부모불화
22	N	N	N	N	N	N	N	N	N	父주벽, 母가출
23	L	L	L	N	N	N	L	N	N	父사망
24	L	N	N	N	N	N	N	N	N	부모불화
25	N	L	M	L	L	L	L	L	N	비교적 화목
26	L	N	M	L	N	N	N	N	N	형제간 차별
27	N	N	N	L	N	N	N	N	N	부모외도
28	L	N	N	L	N	N	N	N	N	父에 대한 불신
29	L	N	L	L	L	L	L	N	N	父외도, 부모불화
30	L	N	M	L	N	N	N	N	N	부모불화, 이혼
31	N	N	L	L	L	N	N	N	N	대화, 이정부족
32	L	L	M	L	L	L	L	N	N	부모불화, 父외도
33	N	N	N	N	N	L	N	N	N	부모의 무관심
34	N	N	N	L	N	N	N	N	N	父주벽

N: none 거의 없음, L: low 낮은 정도  
M: medium 보통 정도, H: high 보통 이상

## 1. 행동과 생활의 파악부재

본 연구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규칙을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준 경우도 거의 없었다.

### 1) 생활의 구체적 지침 제시

면접대상자 중에서 부모가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일부(사례 15, 16, 18, 23, 24, 26, 28, 29, 30, 32 등)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분적이거나 생활의 지침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으나 대개는 커가시간에 관한 지침이 전부이었다.

### 2) 행동과 생활의 파악

본 연구 대상자를 살펴보면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행동과 생활활동의 내용과 심리적 상태를 어느 정도나마 파악하고 있었던 경우는 사례 23, 25, 32 정도라고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이전 또는 국민학교 중간 정도까지는 비교적 자녀의 생활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 소홀해지는 경향이 현저하다.

둘째, 자녀의 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비행이 적발되고 난 이후부터 비로소 관심을 갖는 부모가 많았다는 것이다.

셋째, 구조적으로 자녀에게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고 이런 경우 대리부모 노릇을 하는 대상도 거의 없었다.

넷째, 부모의 무관심으로 자녀에게 일어나는 변화

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대개 부모는 자녀의 공부에만 신경을 쓸 뿐 행동이나 생활의 여러 활동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특히 아버지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알면 파괴적인 훈육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러한 정보를 봉쇄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면접한 청소년 비행자들의 경우, 부모가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제시한 예가 드물고 부모가 자녀의 삶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예도 극히 드물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술, 담배, 본드, 폭력 등의 비행을 시작할 때 대개의 경우가 정에서 알아채지 못한다. 때로는 부모가 이를 짐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기에 미온적인 경계만하다가 가출, 경찰서 출입 등을 통해 아이의 문제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

생활의 파악이 안되면 훈육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하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발달단계적 특징으로인해 자신의 생활을 부모가 아는 것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특별히 세심한 관찰을 하지 않으면 자녀의 생활을 파악하고 있기 힘들다. 부모가 자녀들의 생활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형이나 누나 등 가족 중 부모를 대신하여 이들의 생활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대리 부모 역할을 필요할 만큼 충분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청소년의 행동과 생활활동을 가족 중 누군가가 소상하게 알면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할 가능성이 당연히 커진다. 이들이 밖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녀는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덜 주저할 수 있고 밖에서 있었던 일도 스스럼없이 얘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비행 청소년의 대부분은 부모가 그들의 생각과 행동, 대인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난 뒤에 때늦은 설득과 훈육을 어설프게 하게 된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부모의 서투른 개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 2. 훈육의 무력화(無力化)

본 연구의 대상인 비행청소년을 보면 이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있는 어머니가 훈육의 노력을 꽤 하지만 그 방법이 서툴기 때문에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미약한 경우가 많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 자녀의 생활에 대해 모르거나 자녀의 행동에 관한 정보를 어머니에 의해 봉쇄당하여 자녀의 비행에 대해 모르는 경향이 있는 아버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훈육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훈육방식은 때로 너무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허용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경향이 있어 점차 그힘이 약화되고 무력화(無力化)되었다.

### 1) 나쁜 행동에 관한 금지규칙 제시

비행자 중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은 왜 나쁜 것이니 하지 마라.’는 식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지도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 비행청소년은 나쁜 행동이 어떤 원인에서 생기거나 어떤 결과를 초래하며 그것이 나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경우가 전혀 없었다. 다만 막연하게 ‘나쁜 짓 하지 마라’는 수준의 규율을 명령식으로 말하는 경우는 여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 2) 훈육(훈육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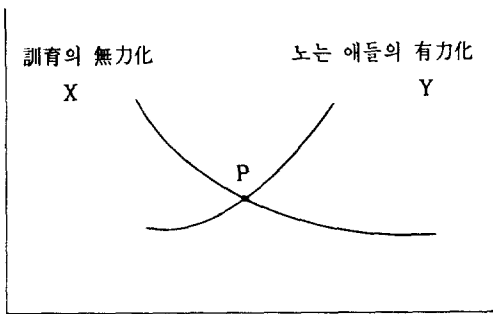
자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대개의 반응은 ‘없던 것으로 하자’, ‘때리면 더 뼈투로 나갈테니까’ 하여 그냥 문제를 덮어두는 허용적인 방식과, 심하게 때리고 잔소리하여 혼내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없던 것으로 하자’, ‘때리면 더 뼈투로 나갈테니까’ 하여 그냥 문제를 덮어두는 방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암묵적 인정, 혹은 무관심으로 받아들여져서 계속 비행을 하게 한다. 그러면 가족들은 ‘재발 — 만은 하지 말라’ 하면서 웬만한 일들은 아이들이 하도록 놔두게 된다. 자녀가 경찰서에 들어가지만 않기를 바라고 만약 입건된다면 ‘돈으로 풀어주고 빼내 준다’. 심하게 때리고 잔소리하여 혼내는 방식의 경우 자녀는 그 상황만 피하려 하고, 오히려 반발하여 대들거나 더 큰일을 저지른다. 급기야 부모는 자녀에게 ‘손을 댈 수가 없게’ 된다. 심한 신체적 처벌을 받고 자란 경우 대개는 중학교이전까지는 부모가 때리면 맞는 것으로 알고 아무 반항없이 맞거나 도망을 가는 정도이다가 차차 반항하고 집밖으로 나가거나 외박을 하게 된다. 비행청소년의 부모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또다른 훈육의 방식은 일정한 원칙이 없이 ‘기분나는대로’ 즉흥적인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훈육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데도 문제가 있다. 훈계나 징계는 한두 번이지만 자녀는 노는 애들을 계속 만나가니까 그쪽으로 끌리게 되고, 부모에게 행동으로 반항하게 된다. 자녀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당황하는 부모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몇 번 시도해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이끌려간다.

마지막으로, 훈육을 일방적인 명령으로 오해하는 부모가 많다는 사실도 찾아볼 수 있다. <훈육의 영

향력> 아무리 훈육이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기가 늦으면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노는 애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훈육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동료집단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부모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됨을 보여준다. 비행자의 경우 비행이 발전되어 나가면서 훈육의 무력화(無力化) 또는 약화(loosen) 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부모들이 처음에는 엄하게 자녀들을 다루다가 잘되지 않자 훈육을 포기하거나, '재발 \_\_\_\_\_만은 하지 말라'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는 요구의 수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노는 아이들로 구성된 동료집단의 영향력은 훈육의 약화만큼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비행의 과정 —

위의 잠정적인 도표상에서 볼 때 훈육의 가능성은 곡선 X와 곡선 Y가 만나는 p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훈육의 무력화(無力化) 과정은 부모들이 훈육의 방법이 서툰 것에서도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비행자들을 보면 훈육이 시기상으로 늦게 이루어지는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훈육은 부모의 훈육의 영향보다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p시점 이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초기에 친구관계에 대해서 거의 모르다가 형사사건이 발생한 후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이미 이때는 가족보다 친구들에 밀착된 이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기 힘들다. 만일 밀착된 마음이 돌려지거나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한다고 해도 씨클에서 쉽게 빠져 나오지는 못한다. 이러한 현상을 바꾸어 말하면, 만약 훈육이 설득력이 있더라도 노는 애들과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비행자들이 받은 훈육방식은 너무 극단적으로 허용적이거나 강압적이며 일관성이 없고 일방적이며 지속성이 없고 즉흥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만약 훈육의 방식이 바람직하여 설득력이 있더라도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시 비행의 트랙에 머무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 비행 청소년들이 노는애들 집단에서 받는 사회적 강화는 대단히 강하다. 이들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디에서도 이러한 강화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단 청소년들이 노는 애들 집단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훈육의 영향력은 극히 미약해진다.

### 3. 바람직한 행동 육성의 부진

본 연구대상자 중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행동의 습득과 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한 경우는 없었다.

#### 1)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가르침

대개의 비행청소년은 부모가 올바른 행동은 이런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생의 긍정적인 목표, 방향의식, 올바른 행동, 삶, 생각, 가치관에 관해 얘기해준 사람도 없었고 사례 8과 같이 간헐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도 자녀들이 듣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기분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라서 그대로 흘러듣고 지나갔다. 자녀의 대인 관계 기술, 공부에 관한 기술, 일과 활동에 관한 기술에 관심을 보였던 경우도 드물었다.

## 2) 가족의 관심과 애정 및 가족에 대한 소속감

부모의 애정과 관심, 소속감 등에 대한 비행청소년들의 인식은 반 수 이상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부모가 아예 버린 아이, 포기한 아이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허다했으나 이보다 주목을 끄는 현상은 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소년원에 들어오기 이전에 부모의 애정을 느끼지 못하다가 소년원에 입소하고 난 다음 처음으로 부모의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부모는 대개 나쁜 행동을 지적하는 데만 급급하여 잘한 행동에 관심이 없고 칭찬과 인정에 인색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사례 13과 같이 ‘대충 잘 하면 잘하나 보다하고 넘어가고 못하면 그러지 마라’는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비춰지기 쉽다. 이런 풍토에서 자녀들이 타고난 재능을 키워나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 3) 대화, 여가시간

비행청소년은 대부분이 가족 중에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 부모와 비교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사례 31 등과 같이 주로 어머니와만 대화가 가능할 뿐이었고 대개 아버지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있었다. 비교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사례 6과 같이 부모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었고 부모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 4. 문제관리능력 육성이 안됨

면담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좌절을 대처하고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며 위기나 스트레스를 다루어 나가는가에 관련된 문제관리 능력을 길러주려는 노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청소년 비행자들의 가족이 겪었던 문제거리리는 아버지의 과음, 부모의 별거, 이혼, 부모의 불화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비행자가 속한 가정 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갔으며 이를 통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음주는 많은 비행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문제였다. 사례34의 경우 평소에는 감정 표현을 억제하던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평소와 달리 감정을 아내와 자식들에게 푼다. 물건을 부수고 구타하고 자고 있던 식구들을 깨워 괴롭힌다. 그리고 술이 깨면 그 일을 전혀 생각내지 못하겠다고 변명을 하고 사과를 하기도 한다. 술이 취하면 다시 그 행동을 되풀이 한다. 사례32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녀는 ‘오늘은 하룻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불안해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가족들에 의해 체념의 형식으로 수용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받는 영향은 두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술을 마시고 집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아버지 나름의 갈등 표현 방식을 배우게 된다. 문제를 드러내 놓고 직접 다루기 보다는 회피나 대치의 형식으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수동 공격적으로 갈등과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어 결국 자기패배적 사회활동을 학습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녀는 문제를 드러내 놓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둘째, 술을 마셨다는 특수 상황에서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에 따라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비합리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정당화시키고, 책임을 술이나 다른 요인에 전가하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표류시켜 버릴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다.

부모의 이혼, 별거와 같은 사건은 가족의 존속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가 받는 외상적 경험은 엄청나다. 면접 결과, 이혼으로 인해 받는 자녀의 충격을 부모가 어떻게 다루어 가고 자녀의 상처를 도닥겨려 주느냐가 중요한 문제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 6의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이혼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혼을 해버렸고 사례 9 역시 아무도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 이유를 답해주지 않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녀는 아무런 정보나 준비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도대체 왜 이런 변화를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 가족이 공동으로 겪어야 하는 문제를 가족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자녀는 배반감과 분노, 반발을 느끼기 쉽다. 부모가 이러한 감정을 다루어 주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비행으로 연결되기 쉽다. 사례 30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나만 마음고생이 심했던’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 문제행동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예이다.

부모의 불화 역시 많은 비행자들이 감당했었던 문제였다. 전체 34개 사례 중 부모가 비교적 불화가 적어 어느 정도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 사례는 6개 사례 뿐이었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어머니를 때리고 자녀는 말리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포기하고 집밖으로 피해 있게 된다.

어렸을 때는 이 상황을 무서워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만성이 되어 무감각하게 되기도 한다. 사례 3과 같이 부모의 싸움을 막기 위해서 자녀가 먼저 화를 내거나 문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부모의 주의를 끄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녀는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여기에서 부모의 불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주로 아버지 쪽의 음주와 외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버지가 남자아이에게 생활의 모범을 보이지 못할 뿐 아니라 좌절과 갈등을 다루면서 여러가지 비윤리적 행동과 난폭한 공격적 행동을 보이게 되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좋은 남성의 행동모형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비행청소년의 가정은 문제관리능력을 기를 수 있는 소극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 갈등, 스트레스, 좌절 같은 상황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다루는 삶의 기능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결과 비행 청소년들은 가족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잘못을 용서하며 어려움이나 갈등을 풀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처럼 좌절을 지혜롭게 넘기는 길만 걸어가게 된다면 ‘좌절은 지혜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은 좌절, 실패, 분노, 스트레스와 같은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부모로부터 학습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이들은 좌절, 갈등, 압력에 대응하는 힘이 약하며 가족관계에서의 수용적 태도나 인간에 대한 존중, 공감적인 이해, 순수한 인간적 만남 등 인간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전혀 배우

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이 어떠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여 왔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청소년비행은 비행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학습해야 할 중요한 인간적 특성을 배우지 못한 것이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가르쳐야 할 바람직한 인간 특성을 교육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가정교육은 다음의 4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행청소년들이 경험한 가정교육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과 생활의 파악의 차원에서 볼 때, 부모들은 자녀의 생활전반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청소년의 특성, 생각, 심리적 상태, 행동, 친구관계, 여가활동, 교내외 활동등의 제반 생활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생활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 중 특히 아버지는 자녀의 생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올바른 행동과 나쁜 행동의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적인 수준에서나마 생활의 규율과 지침을 제시해주다가도,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유기해버리거나 포기해 버린다.

둘째, 훈육의 차원에서 볼 때에도 비행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옳지 않은 행동, 반사회적인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하는 훈육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거나 무력화(無力化)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동료집단의 영향력은 점차 커져 부모의 훈육이 주는 영향력을 감소시킨다. 자녀의 비행이 반

복됨에 따라 자녀의 행동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기준선이 후퇴하게 되고 급기야 부모는 자녀를 견잡을 수 없게 되어 훈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 자녀가 비행에 접근하는 초기에 부모가 시의적절한 훈육을 하지 못하거나 대체행동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자녀를 비행의 트랙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어렵다.

세째, 바람직한 특성의 육성면에서 볼 때, 비행청소년들은 대인관계기술, 공부에 관련된 기술, 일과 활동에 관련된 기술이 서툴고 세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비행청소년들은 가정내에서 애정을 느껴보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가족과 함께 여가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학습할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기회를 통해 바람직한 인간특성을 훈련, 육성하지 않으면 사회의 여러 규범에 잘 적응해 나가기가 용이하지 않기에 비행에 접근할 가능성이 자연히 높아진다.

네째, 문제대응력의 차원에서 볼 때, 청소년 비행자들은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삶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관리해 나가는 능력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가정은 아버지의 음주나 부모의 불화, 별거, 이혼 등이 만성적으로 가족내의 문제로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부모의 대응방식 역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험 속에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가면서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하기 어렵다.

이와같이 가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생활교육이 불채하거나 약화될 때 청소년은 비행에 대한 저항력을 잃게 됨을 알 수 있다. 비행의 예방, 지도는 생활의 파악, 훈육, 바람직한 특성의 육성과 문제대응력의 육성이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해 학교와 사회도 청소년에 대한 생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가지 교육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지도를 위해서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부모는 자녀의 행동과 활동, 그리고 심리적 상태와 생활의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동과 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명백한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이나 활동을 올바르게 판단할 가치 기준이 없으면 부모가 아무리 관찰하고 측정하여도 그 행동을 평가할 척도가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행동과 생활에 대한 명백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이를 지도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끝없이 부모가 허용하는 한계를 시험해보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와서 부모가 어떻게 나오는가 탐색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비행 청소년들의 부모는 이 시험에서 자녀들에게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나쁜 행동이나 생활 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효과적 훈육의 방법을 제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비행 청소년의 경우만이 아니라 신경증 같은 다른 부적응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행동만을 제거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녀들이 더욱 나빠지고 문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의 경우, 좋은 행동과 생활 습관을 육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교육적 단계들을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부적응 행동과 적응 행동은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증강시키면 다른 하나는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좋은 행동과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 자체가 비행을 교정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 특성을 육성하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하나,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의 부모는 나쁜 것만 그만두면 더 바랄게 없다는 소극적 자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그만큼 더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 자세로 긍정적 행동 특성을 육성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다.

넷째, 부모는 대체로 자녀들이 시련이나 위기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좌절이나 위기, 스트레스나 난관을 어떻게 다루어 나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지혜를 적극적으로 교육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비행 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는 기법이나 좌절과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여 오히려 자기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길을 배운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는 지혜나 좌절과 실패를 슬기롭게 관리해 나가는 삶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 그만큼 비행의 가능성은 감소되고 오히려 성공적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이성진, 박성수(1984). 학생비행 예방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문교부학술진흥 기금에 의한 연구보고서.  
한국카운슬러협회편(1987). 비행청소년의 이해와 지도. 서울:성원사.  
Achenbach, T.M.(1982). Developmental psychology.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Alexander, J.F. (1973). Defensive and supportive



- communications in normal and deviant famil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223–231.
- Alkire, A.A., Goldstein, M.J., Rodnick, E.H., & Judd L.L. (1971). Social influence and counterinfluence within families of four types of disturbe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7(1), 32–41.
- Andry, R.G. (1962). Paternal and maternal roles and delinquency. WHO Publ. Hlth. Paper, 14, 31–44.
- Blanc, M.L., & Frechette, M. (1989). Male criminal activity from childhood through youth. Springer-Verlag New York Inc..
- Burt, C. (1965). *The young delinquent*.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 Button, A. (1973). The some antecedents of felonious and delinquent behaviour. *Journal of Child Clinical Psychology*, 2, 35–37.
- Cohen, A.K. (1958).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the gang*. Glencoe, Ill.: Free Press.
- Coleman, J.C. (1971). *Abnormal psychology and modern life*. Scott, Foreman and Company.
- Davison, G.C., & Neale, J.M. (1986). *Abnormal psychology: An experimental clinical approach*. New York: John & Wiley & Sons.
- Dishon, T., Loeber, R., Stouthamer-Loeber M., & Patterson, G.J. (1984). Skill deficits and male adolescent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137–154.
- Freedman, B.J., Rosenthal, L., Donahue, L.P., Schlundt, D. G., & McFall, R.M. (1978). A social-behavioral analysis of skill deficits in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448–1462.
- Gibbons, D.C. (1970). *Delinquent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anson, C.L., Henggeler, S.W., Haefele, W.f., & Rodick, D. (1984). Demographic, individual, and family relationship correlates of serious and repeated crime among adolescents and their sibling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4), 528–538.
- Hetherington, E.M., Stouwie, R., & Ridberg, E.H. (1971). Patterns of family interaction and child rearing related to three dimensions of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7, 160–176.
- Kandel, D.B. (1978). Homophily, selection, and socialization in adolescent friendship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2), 427–436.
- Kandel, D.B., Kessler, R.C., & Margulies, R.Z. (1978). Antecedents of adolescent initiation into stages of drug use: A developmental analysis. In D.B. Kandel (Ed.), *Longitudinal research on drug use: Empirical findings and methodological issues*. (pp. 73–99) Washington D. C.: Hemisphere Publishing Company.
- Patterson, G.R., & Gullion, M.E. (1971). *Living with children*. Research Press Company.
- Rotter, J.B. (1954). *Social learning and clinic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Rutter, M. (1971). Parent-child separation: Psychological effects on the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2, 233–256.
- Santrock, J.W. (1983). *Adolescence*. Wm.C. Brown Company Publishers.
- Snyder, J.J. (1977). Reinforcement analysis of interaction in problem and nonproblem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6(5), 528–535.
- Snyder, J.J. & Patterson, G. (1987). Family interaction and delinquent behavior. In H.C. Quay (Ed.),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John Wiley & Sons.
- Stanfield, R.E. (1966). The interaction of family variables and gang variables in the aetiology of delinquency. *Social Problems*, 13, 411–417.
- Weiner, I.B. (1982).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 Abstract

#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Practices and Adolescents' Delinquency: Analysis on 34 Cases

Cho, Hyun-Jin & Park, Sung-Soo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Behavioral Scienc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practices reported by delinquents and adolescents' delinquency. In this study, parenting practices were delineated into four dimensions as monitoring, discipline, positive parenting, fostering of impasse managing and problem solving skills. The subjects were 34 juvenile delinquents who were detained at a correctional institution of adolescents delinquency. Counselors interviewed all the subjects. Analysis of content has been done by the researchers. The parenting practices reported by the juvenile delinquents are highly associated with the delinquency. Poor monitoring appears to be a critical element in the development of delinquency specially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delinquency. As the peers' influence and power increase, the influence of parental discipline dwindles. Positive parenting, fostering desired behaviors such as social, academic, work skills and normative values contributes to prevention of delinquency. The failure for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to acquire adequate problem-solving and impasse management skills appears to be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delinquent behavior.